

유회소식

제9대 협회 회장에 고보상씨 선임

사단법인 한국윤활유공업협회는 지난 4월 6일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9대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날 협회장에 선임된 고보상씨는 (주)유공의 윤활유담당이사이다.

한편 통상산업부장관은 '95.5.3.부로 회장취임을 승인하였으며 임기는 '95.4.6.~'96.6.18.까지이다.

협회 박선기 부장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상

사단법인 한국윤활유공업협회 기획조사부 박선기 부장이 평소 환경보전에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으로 6월 3일 김종위 환경부장관의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삼성정유(주) 최천행 사장 환경대상 수상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읍지에서 묵묵히 실천해온 환경공로자들이 세계 환경의날인 6월 5일 조선일보 환경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제정한 조선일보 환경대상의 제3회 시상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 5개 부문중 자원재활용대상에 자동차윤활유 재활용업체인 삼성정유(주) 최천행 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쌍용정유(주) 사옥 이전

쌍용정유(주)(대표 : 김선동)은 '95.6.3.(토) 본사 사옥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다.

- 아 래 -

- 우편번호 : 150-010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쌍용타워 14~20층)
- 전화번호 : (02)3772-5000
- F A X : (02) 786-4030

(주)유공 대덕기술원 준공식 가져

(주)유공(대표 : 조규향)은 지난 5월 25일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김항덕 부회장, 조규향 사장 및 각계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경그룹 대덕연구단지에서 유공 대덕기술원(원장 : 변재국) 준공식을 가졌다.

유공 대덕기술원은 지난 '92년부터 3년여간 총 1,100억원을 투자하여 17만5천평의 부지에 연구동 3개동, 실증실험동 4개동 등 총 14개동을 1차로 완공하고 이번에 문을 열게 되었다.

이날 유공은, 2000년 매출목표 2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기술개발 관련 투자비와 인력의 대폭 증원, 종합적인 연구체계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연간 750억원인 기술개발 투자비를 오는 2000년에는 3천억원 규모로 끌어 올리고, 인력도 현재의 2.5배 수준인 1,200여명 선으로 대폭 증원하는 한편, 박사급 연구원 비율을 전체 연구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덕기술원은 유공 기술개발의 주축으로서, 석유류 제품 품질혁신, 생분해성 윤활유 개발, 탈방향족 용제 등 환경에 무해한 석유·석유화학 제품 개발 등 기존 사업영역은 물론 태양전지,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연료전지 등 산에너지 분야, 생·광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등 첨단 고분자

운활소식

제품 개발, 연료유 첨가제 등 정밀화학제품 개발, 경유차량 매연제거장치 등의 환경기술 개발, 생물공학 관련 제품개발 등 신규사업 창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주)유공 국내 최초로 재생연료사업 진출

유공은 국내 최초로 각종 폐기물을 처리, 시멘트 연료 겸 원료로 재활용하는 재생연료사업 진출을 위해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킨키환경홍산(주)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재생연료사업이란 정유·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분진과 폐수처리 후 남게 되는 고형물, 유분 등을 재생연료 제조시설에서 처리, 시멘트회사에서 연료 겸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전무한 분야이다.

유공은 6월부터 1백억원을 투자하여 울산 컴플렉스에 연간 3만톤 규모의 재생연료 제조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완공·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공은 지난 5월 11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 분야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그동안 소각, 매립에만 의존해 왔던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간 3만톤 정도의 유연탄 소비가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한편 유공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 시멘트 제조사인 성신양회(주)와 공동으로 기술을 검토하고 지난해 말 재생연료 제공과 관련한 협

력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운활학회 제21회 학술대회 및 공장 견학 성황

사단법인 한국운활학회(회장 : 안명주)는 '95. 6.8.~6.9. 양일간에 걸쳐 한화정공(주) 공장을 견학하고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화기계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준수의 「최근 구름 베어링의 기술개발 동향」 제하의 학술강연과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95고급 운활기술교육 실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 강중모)는 운활 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업체의 전문기술인력을 대상으로 「'95 고급 운활 기술교육」을 '95. 5.25.~5.26.까지 양일간에 걸쳐 검사소 교육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교육은 국내 석유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 및 정보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운활유 생산업체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주)유공 대덕기술원 문우식 박사의 「초고점도지수(VHVI) 기유를 사용한 운활유의 고성능화», (주)한국하우톤 인천중앙연구소 이중용 소장의 「에스테르계 냉동기유 현황과 실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권영길 부산지소장의 「방청유제와 방청관리」, 엑손 케미칼 코리아(주) 강영석 상무의 「엔진오일 향후 추세와 그에 따른 변화」란 주제로 강의하였다.